

##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요한복음 —

박영진\*

### 1. 요한복음 1:5

GNT <sup>5</sup>	καὶ τὸ φῶς ἐν τῇ σκοτίᾳ φαίνει, καὶ ἡ σκοτία αὐτὸ <u>οὐ κατέλαβεν</u> .
『개역개정』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u>깨닫지 못하더라</u>
『새번역』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u>이기지 못하였다</u> .
『공동개정』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u>이겨본 적이 없다</u> .
『새한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u>이기지 못했다</u> .

#### 1.1. 차이점 관찰

빛과 어둠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사를 『개역개정』만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였고,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이기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 1.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 중에 일부(ESV, NRS, NIV)는 ‘overcome(이기다)’이라고 번역하고 일부(NAS)는 ‘comprehend(이해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Mainz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신약학 교수. 31park43@gmail.com.

어 번역본 중 일부(Einheitsübersetzung[이하 EIN], Elberfelder[이하 ELB])는 ‘erfassen(파악하다, 이해하다)’으로, 그리고 <루터성경>(Luther Bibel[이하 LB])은 ‘ergreifen(붙잡다, 압도하다)’으로 번역했습니다.

###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이 구절에서 어둠과 빛의 관계를 표현하는 동사(καταλαμβάνω)는 『개역개정』처럼 ‘깨닫다’라는 의미도 있고, 『새번역』처럼 ‘이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번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1장의 문맥은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하다’라는 번역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표현은, 1:9-10에서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 속에 ‘계셨다’라는 표현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둠을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어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또는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5의 동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를 묘사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9:4-5에서 어둠으로 볼 수 있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는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일을 못 하게 하는 밤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일을 못 하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밤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12:35에서는 빛과 어둠이 대조되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면 어둠에 붙잡히지(καταλαμβάνω)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빛이 우리를 붙잡는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2:46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다시 말하면, 이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빛과 어둠의 관계는 두 세력으로서 경쟁 관계인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밤이나 어둠이 빛의 힘에 눌러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5의 빛과 어둠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는 ‘깨닫지 못하다’보다는 ‘이기지 못하다’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 안에서 더 잘 어울립니다.

## 2. 요한복음 4:23

GNT <sup>5</sup>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καὶ νῦν ἐστίν, ὅτε οἱ ἀληθινοὶ προσκυνητ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 τῷ πατρὶ <u>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u> · καὶ γὰρ ὁ πατὴρ τοιούτους ζητεῖ τοὺς προσκυνοῦντας αὐτόν.
『개역개정』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u>영과 진리로</u>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번역』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u>영과 진리로</u>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공동개정』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u>영적으로 참되게</u>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새한글』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u>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u>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 2.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영과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특정한 존재나 사실을 연상시킵니다. 그에 반해 『공동개정』은 ‘영적으로 참되게’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배드리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에 반해 『새한글』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로 번역했습니다.

### 2.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ESV, NAS, NIV, NRS)은 ‘in spirit and truth(영과 진리로)’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spirit이 소문자로 시작한 것은 성령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어 번역본들도 ‘im Geist und in der Wahrheit(영과 진리로)’(EIN, LB)나 ‘in Geist und Wahrheit(영과 진리로)’(ELB)로 번역했습니다. 전자는 정관사를 붙여 주어 특정한 영과 특정한 진리임을 나타내 줍니다.

###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새한글』을 제외한 이런 번역들은 직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공동

개정』은 이 전치사구를 보다 부사구처럼 해석하여 이 전치사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정관사를 넣은 독일어 EIN이나 LB는 여기에 쓰인 명사들이 단순한 영이나 진리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정한 영과 진리임을 보여 주고자 정관사를 덧붙여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개역개정』의 ‘영과 진리’는 그 이전의 번역인 개역의 ‘신령과 진정으로’ 보다는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려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이 무슨 영인지, 곧 하나님의 영인지, 그리스도인의 영인지 불분명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영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제자들이 예배드릴 때 함께 하는 이 ‘영과 진리’에서의 영은 예배드리는 제자들의 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인간의 속성으로서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임을 요한복음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의 문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4:23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한 대화 중에 나오는데, 이 대화는 생수에 대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 대화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4:14).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기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7:38-39). 그런 점에서 4:14의 생수에 대한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9-26의 대화에서는 그 생수이신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3:5-8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연결시킨다면 영과 진리는 물과 성령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과 진리에서 영은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 영과 진리는 성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고별설교에서, 특별히 14-16장에서 집중적으로 성령이 진리의 성령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14:17; 15:26; 16:13). 그리고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16:13). 그런데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16:14).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14:6). 그런 점에서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4:23, 24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길로 제시되는 영과 진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과 진리는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영과 진리를 연결하는 접속사(καί)를 ‘헨디아디스(hendiadys)’로 보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를 두 가지 명사로 풀어쓴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4:23-24)와 진리의 성령(14:17; 15:26; 16:13)을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정관사의 유무(有無)로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항상 정관사와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1:33; 3:5; 7:39; 20:22). 그러므로 정관사의 유무를 근거로 4:23-24와 14:17; 15:26; 16:13을 다르게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한글』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함은,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인데(16:13), 그 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 3. 요한복음 8:58

GNT <sup>5</sup>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πρὶν Ἀβραὰμ γενέσθαι <u>ἐγὼ εἰμί</u> .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u>내가 있느니라</u> 하시니
『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u>내가 있다</u> .”
『공동개정』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u>나는</u>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u>있었다</u> .” 하고 대답하셨다.

이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에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ἐγὼ εἰμί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를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공동개정』은 각각 ‘내가 있느니라’나 ‘내가 있다’나 ‘나는 … 있었다’로 번역했습니다. 『새한글』은 ‘바로 내가 나입니다’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본들(ESV, NAS, NIV, NRS)이나 독일어 번역본들(EIN, ELB, LB)은 모두 'I am'이나 'bin ich'로 번역하여 원문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이런 ἐγὼ εἰμι 번역은 아브라함과 비교의 초점을 생존의 시기에 맞춰서 생긴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ἐγὼ εἰμί 번역과 관련해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신 것이 생존 시기에 맞춰 있었다면 ‘내가 있다’보다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신이 ‘있었다’라고 과거형(ἦν)으로 번역해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 곧 그 대답에 돌을 들어 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에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것은 예수의 말을 신성 모독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레 24:16. 참조, 요 10:30-33).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보충해 주는 말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 예수께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8:24, 28; 13:19). 그런 점에서 이런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이 문장을 ‘바로 내가 나입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 4. 요한복음 10:38

GNT <sup>5</sup>	εἰ δὲ ποιῶ, κἂν ἐμοὶ μὴ πιστεύητε, τοῖς ἔργοις πιστεύετε, ἵνα <b>γινώτε καὶ γινώσκητε</b> ὅτι ἐν ἐμοὶ ὁ πατὴρ καὶ γὰρ ἐν τῷ πατρὶ.
『개역개정』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b>깨달아 알리라</b> 하시니
『새번역』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b>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b> ”
『공동개정』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b>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b> ”
『새한글』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시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b>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오.</b> ”

##### 4.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깨달아 알리라’로, 『새번역』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로, 『공동개정』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로 번역했습니다. 그에 대해 『새한글』은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오’로 번역했습니다.

##### 4.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ESV, NAS, NIV, NRS)은 ‘you may know and understand’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번역 EIN은 ‘erkennen und einsehen’, ELB는 ‘erkennt und versteht’, 그리고 LB는 ‘erkennt und wisst’로 번역하여, 첫 번째 동사는 모두 다 ‘알다’ 또는 ‘인식하다(erkennen)’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두 번째 동사는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해하다’ 또는 ‘알다(einsehen, versteht, wisst)’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역 모두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여기에 쓰인 두 동사는 ‘믿으라’라는 명령형에 따른 결과를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 나타나는데, 이 동사는 ‘알다(γινώσκω)’라는 동일한 동사가 시제를 달리하여 처음에는 과거형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현재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시간상 차이를 두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거형 시제가 갖는 의미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을 하기 시작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현재형 시제는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제 상의 차이를 살려서, 처음 동사는 시작을 나타내는 ‘알게 되고’로, 그리고 이어지는 현재형 시제는 ‘계속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주는 것이 시제의 의미를 살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호 내주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알고 있게 된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동일한 동사의 이 두 다른 시제의 의미를 잘 살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두 동사는 같은 동사인 데,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역본들은 다른 동사를 사용하여 두 동사가 같은 동사임을, 그래서 그 차이는 동사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동사의 시간상 차이임을 잘 보여 주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새한글』은 같은 동사임을, 그러면서 시간상의 차이임을 알려 줍니다.

#### 5. 요한복음 16:2

GNT <sup>5</sup>	ἀποσυναγώγους ποιήσουσιν ὑμᾶς· ἀλλ' ἔρχεται ὥρα ἵνα πᾶς ὁ ἀποκτείνας ὑμᾶς δόξη <u>λατρεῖαν προσφέρειν τῷ θεῷ</u> .
『개역개정』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u>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u> 하리라
『새번역』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u>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u>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공동개정』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u>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u>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새한글』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대들을 죽인 사람마다, <u>하나님을 섬긴다며 제물을 가져다 바친 것으로</u> 생각할 때가 옵니다.



### 5.1. 차이점 관찰

이 구절에서 우리말 번역은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공동개정』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로 번역했습니다. 그에 반해 『새한글』 번역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제물을 갖다 바친 것으로’로 번역했습니다.

### 5.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은 ‘is offering service to God’(ESV, NAS, NIV)으로 번역하거나, ‘is offering worship to God’(NRS)으로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번역도 영어의 service에 해당하는 Dienst를 사용하여 ELB나 LB는 ‘tun einen Dienst’로 번역했고, EIN은 그 섬김에 ‘heilig(거룩한)’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로 번역된 그리스어(λατρεία)는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제사 예식과 관련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두 번은 ‘예배’로 번역되어 있고(롬 9:4; 12:2), 한 번은 ‘섬기는 예식’으로(히 9:5), 그리고 나머지 한번은 ‘섬기는’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히 9:1). 특별히 이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관련이 있음은 로마서 12:1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산 제사와 연결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2에서의 섬긴다는 의미도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죽음은 예배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물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한글』에서는 이 단어에 제물의 의미를 담기 위해 좀 풀어서 원문의 의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 6. 요한복음 20:2

GNT<sup>5</sup>                    τρέχει οὖν καὶ ἔρχεται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καὶ πρὸς τὸν ἄλλον μαθητὴν ὃν ἐφίλει ὁ Ἰησοῦς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ἦραν τὸν κύρι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καὶ οὐκ οἶδामεν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개역개정』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새번역』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u>예수께서 사랑하시던</u>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 니다.”
『공동개정』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u>예수 께서 사랑하시던</u>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 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 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새한글』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 자 곧 <u>예수님이 좋아하신</u> 제자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 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 6.1. 차이점 관찰

위 구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그  
리고 『공동개정』은 모두 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런데 『새한글』은 이를 ‘예수님이 좋아하신’으로 번역했습니다.

## 6.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번역본들 중에 ESV나 NRS는 이를 ‘the one whom Jesus loved’로,  
NAS는 ‘whom Jesus loved’로, NIV는 ‘the one Jesus loved’로 번역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사는 다 love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독일어  
번역도 영어 번역처럼 lieben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 6.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예비적 고찰

이런 번역들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다른 구절들에서(13:23; 19:26; 21:7;  
21:20) 모두 ‘사랑하시던(ἀγαπάω)’이라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20:2도  
거기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6.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실 이 표현이 수식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서 이는 요한복음의 저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21:20-25). 이 제자에 대한  
이런 수식은 요한복음 안에서 전부 5회 등장하는데(13:23; 19:26; 20:2; 21:7;  
21:20), 이때 사용되는 동사가 20:2를 제외하고는 모두 ἀγαπάω라는 동사입니

다. 그에 반해 20:2에서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다른 동사인 φιλέω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위에서 제시한 우리말 번역뿐 아니라, 영어 역본들이나 독일어 역본들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그리고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지만,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런 원어상의 차이를 독자들도 확인할 수 있기 위하여 ἀγαπάω는 ‘사랑하다’로, φιλέω는 ‘좋아하다’로 구분해서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사랑하시는’으로, 후자는 ‘좋아하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등장합니다(참조, 21:15-17).

<주제어>(Keywords)

빛과 어둠, 영과 진리, 에고 에이미, 요 16:2, 사랑하시는 제자.

the light and the darkness, spirit and truth, ἐγὼ εἰμὶ(ego eimi), John 16:2, the loved disciple.

(투고 일자: 2024년 9월 2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2월 20일)